

## 법 어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정각회 국회의원 불자님들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나라의 국운도 푸른 들판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말의 기상처럼 융성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각회는 뜻깊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당도 정권도 여러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정각회는 불자라는 자긍심이 이끄는 정진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항상 푸른 모습 그대로를 이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당도 정권도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에는 여야가 있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 가운데 통일의 기운이 싹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례없는 긴장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대화와 교역이 단절되고 대결의 위험이 고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생각한다면, 남과 북의 이산가족을 생각한다면, 나아가 민족의 번영을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남북의 대결국면 속에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올해는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더욱 무르익고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침 남북의 반가운 소식들이 봄소식처럼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일에 우리 정각회 의원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 신뢰하는 기관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의 순위가 맨 아래쪽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우리의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께서는 바른 정치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셨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이상적인 정치지도자를 전륜성왕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왕에 빗대어 말하는 사회였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왕은 오늘의 정치 지도자를 통칭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일아함경 결금품(結禁品)에는 국왕이 지녀야 할 열 가지 덕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권위와 책무에 들어맞는 중요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른 정치지도자는 바른 생각으로 공평 무사하게 법집행을 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하며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바르게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떤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신뢰도 순위가 맨 아래를 기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지도자는 바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국가의 법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정의로서의 법’입니다. 진리와 정의의 법에 서면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보다 민족과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륜성왕의 정치이며 바른 정치지도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원님들의 여러 노고들마저도 일순간에 묻혀버리고 오해로 왜곡되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덕목을 실천할 때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라는 행위도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일종의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당사자가 국민을 헌신과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헌신과 봉사를 행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정각회 의원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셔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항상 축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2월 21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